

[종합·해설]

범여권 분파... 광주·전남 정치지형 대파란

우리당 의원 14명중 4명만 당적 유지

**대통합 명분... 총선 위기의식... 10명 탈당
통합민주·대통합추진협과 3개 정파 분화**

■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적변동 상황

2004년 총선직후	변동상황	현소속 또는 진로
광주 광산 김동철(열)	2007년 6월 탈당	(무) 제3지대 대통합추진협 첨가 예정
광주 남·지방문(열)	"	(무) "
광주 북갑 강기정(열)	"	(무) "
광주 북·김태홍(열)	2007년 2월 탈당	(무) "
광주 서갑 염동연(열)	2007년 1월 탈당	[중도개혁신당] 통합민주당 합류 예정
광주 서을 정동재(열)	2007년 2월 탈당	[중도개혁신당] 통합민주당 합류 예정
광주 동·양행일(열)	2007년 2월 탈당	[중도개혁신당] 통합민주당 합류 예정
장흥 영암 유선희(열)	2007년 2월 탈당, 민주당 입당	(민) 통합민주당 합류 예정
고흥·보성 신종식(열)	2005년 9월 탈당, 민주당 입당	(민) 통합민주당 합류 예정
여수 강 김성곤(열)	"	"
여수 을 주승용(열)	2007년 2월 탈당	[중도개혁신당] 통합민주당 합류 예정
순천 서갑원(열)	"	"
강진·완도 이영호(열)	"	"
광양·구례 우운근(열)	2007년 2월 탈당	(무) 진로 불확실
영광·함평 이낙연(민)	"	[민] 통합민주당 합류 예정
담양 장성 김효석(민)	"	"
무안·신안 한희길(민)	2006년 12월 의원직상실, 2007년 5월 보선 김동철 당선(민)	(민) "
해남·진도 이정일(민)	2006년 9월 의원직상실, 2006년 10월 보선 채일병 당선(민)	(민) "
목포 이상열(민)	"	"
나주·화순 최인기(무)	2005년 5월 민주당 입당	(민) "

지난 8일 강기정(광주 북갑), 지병문(광주 남),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이 탈당함에 따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 당적으로 당선된 광주·전남 지역 1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여당을 떠난 의원은 10명에 이르게 됐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에 잔류하고 있는 의원은 정동재(광주 서을), 이영호(강진·완도), 김성곤(여수 갑), 서갑원(순천서) 등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구도는 당분간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신설합당 형식으로 향당되는 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 2자 및 3자 탈당 의원으로 구성되는 제3지대 대통합추진협의회, 열린우리당 잔류파와 등 3개 정파로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0년 가는 정당을 내세웠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행렬은 명분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 대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그 누구도 민주세력 대통합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탈당은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

다는 것이 지역 정서다.

열린우리당에서 가장 먼저 당적을 버린 의원은 현재 민주당 당적을 지니고 있는 신종식 의원(고흥·보성)이다. 신종식 의원은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을 이유삼아 탈당,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은 신종식 의원의 입당으로 의석수가 11석으로 늘어나 10석의 민주노동당을 제치고 원내 3당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신 의원의 탈당 이후 열동연 의원(광주 서갑)이 올해 1월 열린우리당을 떠났다.

열 의원은 친노 직계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대통합을 위한 선도 탈당론을 제기하며 집단탈당의 물꼬를 냈다.

2월에는 주승용(여수 을), 양형일 의원(광주 동)이 당내 23명의 의원들과 함께 탈당, 중도개혁통합신당에 합류했다. 또한, 같은 달 우윤근(광양·구례), 유선희(영암·장흥), 김태홍 의원(광주 북구)도 탈당 대열에 합류, 민생정치모임에 등지기를 틀었다.

여기에 6월 들어 강기정, 지병문, 김동철 의원도 탈당을 결행함에 따라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린 의원은 총 10명

에 이르렀다.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린 의원 가운데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으로 생겨나는 신종식 의원(고흥·보성)이다. 신종식 의원은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을 이유삼아 탈당, 민주당에 입당했다.

여기에도 아직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윤근 의원의 경우, 명분(제3지대 대통합추진협의체)과 실리(통합민주당)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통합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태홍 의원은 강기정, 김동철, 지병문 의원 등과 함께 대통합추진협의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에 잔류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의원 가운데 이영호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오는 15일 이후 정국 전개 상황에 따라 제3지대 대통합추진협의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참여정부에서 문광부 장관을 맡았던 정동재 의원과 친노 직계인 서갑원 의원은 당분간 정국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최재성, 우상호, 임종석 전 대변인과 이종걸, 이목희 의원 등 탈당파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진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교동계 범여 대통합 물밀 행보 분주

권노갑, 박상천 등 만나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범여권 대통합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사도(使徒)인 동교동계 인사들이 갈라진 범여세력을 봉합하기 위해 물밀에서 분주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올해 대선에서 범여권을 하나로 만들고 한나라당

과 양자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 전 대통령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양측 간 갈등과 주도권 다툼이 회복불능의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다독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규환, 설훈, 배기운 전 의원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권 전 고문은 지난 2일 저녁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단둘이 만나 범여권 대통합의 결집으로 작용하고 있던 '특정 세력 배제론'을 철회토록 설득한 데 이어, 3일에는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열린 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원혜영·배기선·유인태·최규성 의원, 탈당한 이강래·염동연 의원, 정규환·이호웅 전 의원 등과 회동했다. 이후 박 대표는 지난 3일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를 만나 소통합 협상을 타결지었고, 사흘 뒤인 6일 배제론을 사실상 철회했다. /연합뉴스

DJ "잃어버린 10년 운운은 언어도단"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지금 일부에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6월 항쟁의 성과를 펼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내 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6월 항쟁은 우리나라에서 독재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민주주의 확립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년에 걸친 독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냐"고 반문하고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를 '되찾은 10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여야 정권교체를 확립하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권에 들어가는 위업을 이룩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10년간의 과업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新 브로드웨이 뮤지컬코미디

낸센스 CRACKER

2007. 6. 30(토)~7. 1(일)

토 pm.4:00, 7:30 / 일 pm.3:00, 6: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출연: 조갑경, 심현섭, 김숙, 나정윤, 홍지민, 이정인, 김보라, 김두명, 장윤진, 김현석

주최: 광주일보사

주관: 공연마루

인터넷예매: www.ticketmaru.co.kr

예매처: 광주은행 전자점

삼복서점 / 현대백화점(10층 카드상품권 코너)

공연문의: [062] 220-0541, 1588-0766